

카드뉴스 제60호 | 국제 청소년의 날(8/12)

청소년에 대한 우리의 시선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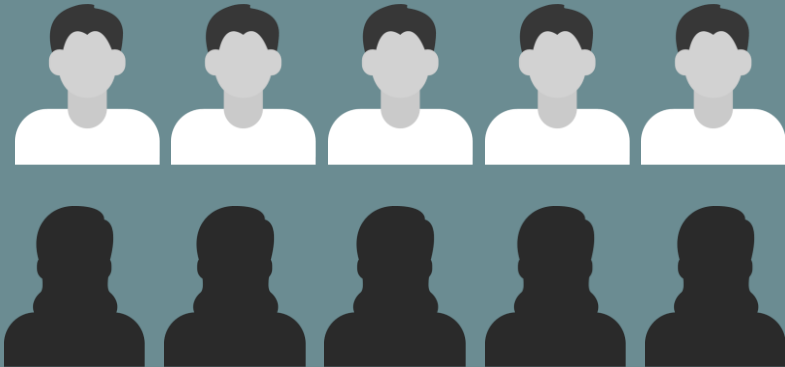


과거와는 많이 달라진 청소년들,
국민 2명 중 1명은 청소년이 우리 사회에서
어른과 동등한 권리와 책임을 가져야한다고 생각

본 조사에서 청소년의 연령은
'만 13세에서 만 18세까지'

Q. 청소년이 어른과 동등한 권리와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?

(전체 1,142명)



매우 그렇다 + 그렇다

49%

그러나 국민 과반 수는 청소년에 대한 **사회적 편견**이 존재한다 생각하며,
청소년은 '**감정조절이 미숙하다**'는 편견이 만연

Q.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

(전체 1,142명)

동의 비동의

감정조절이 미숙하다

88%

12%

책임감이 부족하다

77%

23%

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다

58%

42%

미성숙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없다

57%

43%

사회 문제에 관심이 없다

45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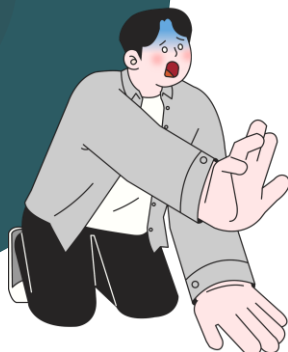
55%

신뢰하기 어렵다

38%

62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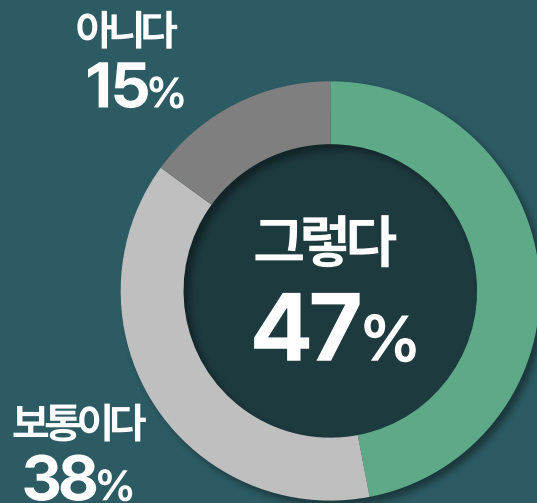
55%
존재한다



국민 절반정도는 청소년의 인권은 **충분히 보장**되고 있다고 생각
가장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할 권리는 '**보호권**'

Q 청소년 인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

(전체 1,142명)



청소년인권이 보장되고 있다는 인식은
2030세대에서 높게 나타남

20대 (193명)	59%
30대 (205명)	50%
40대 (235명)	45%
50대 (267명)	41%
60대 이상 (242명)	45%

Q 우선적으로 보장이 필요한 청소년 권리

(전체 1,142명)

 **보호권** (폭력, 학대, 차별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)

41%

생존권 (기본적인 의식주, 건강,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)

27%

발달권 (교육, 문화, 놀이 등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권리)

20%

참여권 (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, 정책이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)

12%

'두발·외모 규정'과 '청소년 공모전에서 학교명 기재 요구'는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의견이 많음

Q. 다음 사례가 청소년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?

QUESTION

청소년 대상으로
최저시급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

인권 침해이다

85%

QUESTION

(전체 1,142명)

종교재단 학교에서 특정 종교수업을 강요하는 경우

인권 침해이다

82%

학생들의 동의 없이 학생들의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

인권 침해이다

69%

방과 후 학습이나 자격증 시험 준비 등
학생이 원하지 않아도 상관없이 강제로 참여

인권 침해이다

69%

염색, 파마, 화장 등을 금지하는 두발·외모 규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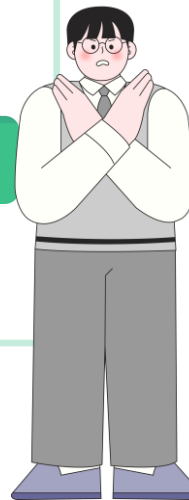
인권 침해이다

41%

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에서
학교를 기재하라고 하는 경우

인권 침해이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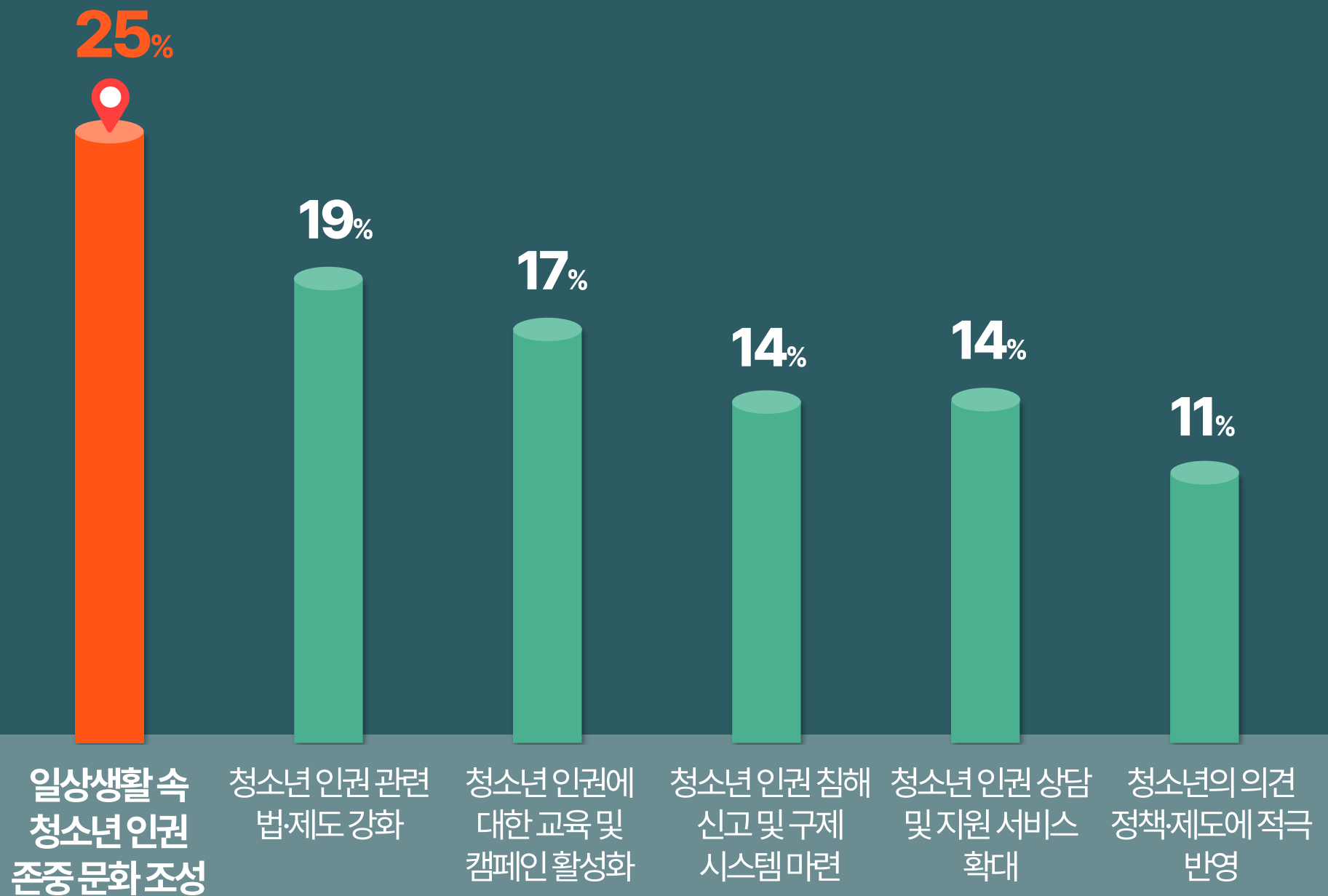
39%



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청소년 인권 보호 방안은 일상생활 속 청소년 인권 존중 문화 조성!

Q. 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해 가장 먼저 실천되어야 하는 방안

(전체 1,142명)



미래의 주인공, 청소년들이 각자의 꿈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도록 우리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합니다.

조사기간

▶ 2025.07.11~14

조사방법

▶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
온라인 웹 조사

조사대상

▶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
1,142명



케이스탯은 품질 높은 데이터 생산을 바탕으로
고객의 문제해결에 필요한 인사이트와 컨설팅을
제공해 드립니다.

Kstat



<http://www.kstat.co.kr>



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4길 76 월드빌딩



02-6188-6000



admin@kstat.co.kr